

## 제 46회 제1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3월 12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3월 12일 하오 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 찬 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임일남, 이재홍, 김남진, 김자홍, 김길환, 문택호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시교육감 신현중

각 과장 및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4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2) 제45회 제3차 회의록 통과
- 3) 연동 관통도로 원상복구 교섭결과 보고
- 4) 6인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목일보도사건)
- 5) 구호양곡 배급상황보고

### ◆ 부의사항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출 경정 예산안 심의

기타

· 제7회 시정 감사반 편성

## 8. 토의사항

※제4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본 건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

※제45회 제3차 회의록 통과

본 건 역시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

※연동 관통 도로 원상복구 교섭결과 보고

### ◇진 복 춘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즉시 상도 경찰국장을 방문 상의하였던 바 의회 측에서 직접 소할(所轄)경찰서장과 절충하여 선처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그 즉시 귀임 당지 변 경찰서장은 보안계장 등과 타협한 결과가 급적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자동차에 한하여는 불가피하나 기타 차마에 대하여는 신중고려하기로 확약한바 있으나 금반 의외에 변서장의 전출로 유감스럽게 되었으며 신임서장과 절충하여 적극 성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0시 50분 임일남의원 참석)

※6인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목일보도 사건)

### ◇이 복 주 의원

- 본 건 조사단 6인 위원회가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시 및 교육청 등 세밀 조사한 바 있고 목일측에 그 취재의 동기등을 종합적으로 타진한바 있으나

본 기사에는 절대착오가 없다한다 이후 20일간의 시정감사를 통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상을 밝히려 합니다.

※용당도선장 매점 관계 해결 진정

광주시 거주 강석봉 제출의 본 진정서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김 창 현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위하여 조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동의 재청...5청

◇정 응 표 의원

- 김창현 의원의 제안에도 찬동하는 바이나 그 진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박두된 시정감사관계 등도 있으니 행정부 측에게 일임할 것을 개의

◇진 복 춘 의원

- 행정부측에 일임한다는 것보다 시민의 소리를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조사위원을 구성 조사케 하는 동의에 찬동하고 싶다.

◇김 삼 성 의원

- 소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발언하는 바이나 본 진정서는 4285년 1월 20일자 전임 배 시장 재임시에 제출하여 우금 행정부와 절충하여 온 것 같으나 그 귀착점을 못 본 것 같다 그 주무과인 건설과장의 내용 설명을 요망한다.

◇건설과장

- 그 진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금까지 확실한 근거를 못 얻어 곤란한 형편입니다.

표결결과

개의 : 찬동없어 폐기

동의 : 재석 16명중 가 12표 가결

- 조사위원으로는 오세일, 김창현, 진복춘 의원을 지명

※전남화물선 조합측 진정

서기 박찬대로부터 진정서 낭독이 있었음

◇진 복 춘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산업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전남 화물선 조합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청취한 이후 채택함이 가타고 사료됩니다.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9표 가결

(11시 30분 이재홍의원 참석 17명)

◇김 삼 성 의원 긴급동의

- 목포사범부속국민학교 건축문제에 대하여 1,400만원 예산으로 2개년 연차계획을 수립착공케 될 것이라는바 문교부에서는 현 이로국민학교를 사용키로 하고 그 대가로 동면에 국민학교를 신축케 한다는 설이 있는 한편 이르면 이장단 및 사친회 측에서는 본 건 추진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목포문화의 발전과 목포 아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14교실 신축될 사범부속국민학교를 당 시내에 유치하도록 당 시의회의 결의로서 교섭위원 2명을 문교부에 급과 교섭토록 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본 건에 대한 찬성연설이 있었음

표결결과 재석 17명중 만장일치 가결

교섭위원 김삼성, 이복주의원 지명

※구호양곡 배급상황 보고

◇사회과장

- 본 건 구호양곡 배급실태는 산정 1구 78세대 대성 1구 20 대성 2구 14 서산동 63세대 계 183세대로서 7월분 27톤 8월분 13톤의 소량으로 판자옥 철거 후로는 산정 1구 30 대성 1구 78 대성 2구 47 서산동 20세대의 비례로 각각 가산하여 배급하였던 것이며 장차 여유 있는 대로 당해동에 더 증

배할 계획입니다.

◇김 영 완 의원

- 사회과장의 보고요지는 저반 의회시의 질문내용과는 판이한 것이 있다. 금후 시정감사를 통하여 세밀히 조사하여 보겠다.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출경정 예산안 심의

◇신 교육감

- 제안 이유설명에 이어

◇김 영 완 의원

- 본 건 심의에 있어서는 문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심검토케 한후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 ...3청

◇손 백 수 의원

- 해 경정예산안을 일별컨대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에 들어가 심의할 것을 개의. 재청

◇이 복 주 의원

- 본 건을 검토한 결과 학년말을 계기로 하여 예비비를 삭감 비품비에 주력한 것 같다. 제안측의 입장도 고려하여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재개의. 재청

◇김 삼 성 의원

- 월가월부보다 의사일정을 변경 금일중 전문분과위원회에 이송 검토케 한 후 명13일 의사당을 시 회의실로 변경 토의할 것을 재재개의. 재청

◇정 응 표 의원

-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동의. ...재청
- 표결결과 재석 17명중 가 11표 가결

각 동의표결

재재개의 : 재석 17명중 가 3표 부결

재개의 : 재석 17명중 가 8표 부결

개의 : 재석 17명중 가 1표 부결

동의 : 재석 17명중 가 5표 부결

◇김 영 완 의원

- 회의 규칙상 재표결 할 것을 요청

재재개의 : 재석 17명중 가 3표 부결

재개의 : 재석 17명중 가 10표 가결

※ 제7회 시정감사반 편성

◇임 일 남 의원

- 시정 감사반 편성은 제1석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결정 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7명 만장일치 가결

※ 반별 지원 상황

반 별	감 사 위 원
제1반	이소규 김경희 명남철 각의원
제2반	김창현 이문길 정응표 김영완 김삼성 손백수 김경현 김자홍 이재홍 각의원
제3반	김길환 문택호 각의원
제4반	오세일 이복주 진복춘 김필용 김남진 임임남 각의원

◇정 응 표 의원

- 각 반별 감사위원의 배치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제1반, 제2반을 1반으로 제3반, 제4반을 2반으로 합동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7명중 만장일치 가결

· 하오 1시 30분 제46회 제1차 회의의 산회할 것을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3월 15일

시의원 김 영 완

시의원 김 팔 용

작성자 주 도 식

## 제46회 제2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3월 30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3월 30일 하오 12시 4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이복주, 김삼성, 김경현, 문택호,  
김길환, 오세일, 이재홍 각의원

###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외 각 과장

시교위 학무과장, 서기 주도식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46회 제1차회의록 통과
- 2) 전남화물선조합 제출 진정서 철회의 건
- 3) 용당도선장 매점 관계 진정보고
- 4) 목포사범부속국민학교 설치 진정 결과보고
- 5) 목포상과대학 문제 조사 결과보고
- 6) 연동 관통도로 교섭 결과보고



7) 제7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기타

8. 토의사항

※제46회 제1차 회의록 통과

본 건 간사 방재수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

※전남화물선조합 제출 진정서 철회의 건

거(去) 제46회 제1차회의시 제출되었던 전남화물선조합 진정서 철회요청 내용을 간사 방재수로부터 낭독 재석의원 전원 찬동으로 각하할 것을 결의 하였음

※용당도선장 매점 관계 진정보고

◇진 복 춘 의원

- 본 건 조사에 있어서는 왜정시대의 부회의원 및 그 당시 연관성있는 제 인사등을 방문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시내 각서점을 순회하여 부유재산이 등재된 구서적 입수에 노력한 결과 다행히 4285년 12월 발행의 목포시 재산목록 일람표라는 책자를 입수케 되었다. 해 책자에 의하면 사무소 및 대합실의 8.15평이 시유재산으로 뚜렷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장부에 무기재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모르겠다 아직까지 더 확실한 것을 조사불능이었으니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시일을 약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1시 15분 이복주 의원 참석 15명)

◇김 창 현 의원

- 본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도선장 매표관계와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며 진 의원이 보고한 시유재산 목록일람표라는 대장도 믿지 못 할것으로 본다.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더 확실성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9표 가결

※목포사범부속국민학교 설치 진정 결과보고

◇이 복 주 의원

- 본 건 교섭에 있어서는 상경전 상당한 애로가 개재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설치에 있어서 그 대지를 시내에서 물색 회사한다는 조건 등이며 문교부측에서는 도지사를 통하여 이로 국민학교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하고 이로면에서는 동면 상리방면에 현 교사와 같은 구조의 건물을 완전준공한 연후 명도한다는 등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등은 상경즉시 문교부 관계요로와 적극 교섭한 결과 당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도지사를 경유 중앙에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금년도 신입생은 당 시내에서 모집하기로 확약하고 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분부하여 89년도 예산에 850만환을 계상 시내에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목포 상과대학 문제 조사 결과보고

(11시 30분 김삼성 의원 차석 16명)

◇이 문 길 의원

- 본 건에 있어서 해 상대 교수진 등 4인이 합석하여 거반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토의한바 있으나 상과대학을 광주로 이전할려는 전초전은 절대 아닌 것이며 도내소제 5개 단과대학 1년은 예과대학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일괄하여 광주물리대학에서 교수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목포상대에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것을 보아도 광주 이전설은 낭설인 것 같으며 당 시출신 전 민의원과도 상의한바 있으나 만약 당해교 이전설이 확실하다면 즉시 통지하여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 의장

- 참고로 말씀드리나 전일 기관장 회의석상에서 전남대학 이사직에 계신 차남진씨에게 본 건 사실여부를 문의 하였던바 방금 이의원의 보고 말씀과 같이 1년내지 1년반 가량은 광주에서 집단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코

광주이전의 전초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연동 관통도로 교섭 결과보고

◇손 백 수 의원

- 거(去) 28일에 우리 3인 위원회가 신임 윤 서장을 방문 요담하였던 바 우마차는 종전대로 복구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자동차의 통행로 문제는 점차 현지를 답사 결정짓기로 하고 현재대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보건부에서는 2월 2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130여개소의 격리병사를 신축 계획 중 이라하는 바 저반 보건부 의료계장 내도시 타진한 바에 의하면 6개소는 확정적이라 하며 목하 그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 한다. 현재 우리 목포시 유일의 격리병사인 대성병원은 왜정시 건립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 당시에는 시 중심지였으나 시세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는 해 병원 부근 일대에 민가가 밀집하고, 겹하여 6.25 동란 후 다수 피난민 운집으로 가건축 편의건축 등의 급증으로 병원구내로 도로를 부설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원래 격리 병사라하면, 글자 그대로 민가와 격리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전술 제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금반 일실호기 하여 당 시에 격리병원을 신축하도록 중앙에 건의차 교섭의원 2인을 중앙에 파견 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정 의원의 격리병사 신축건의 동의에 대하여는 찬동하는 바로서 중언부언 하는 것을 피하고 싶으나 그 자재만 획득하여 놓는다면 부지매수 및 공사 비용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의 염출방도는 여하히 할 것인가 이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활문제를 좌우하는 상수도시설 관계로 향동시장 등 매각처분을 부득기 단행하것케 될지도 모르는 단계에 있는데 여사한 막연한 결의를 한 단는 것은 무모하다고 보는 것이다 목하상경중의 시장님의 귀청을 기다려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복안을 수립 결정기로 하고 교섭 의원 파견은 일시보류하고 건의문만을 채택 발송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실은 공사비넘출에 있어서는 현대 성병원을 매도하여서도 그 일부는 보충될 것으로 믿는 바이며 또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현재 목포지방방송국에 0.5키로의 송신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근간 부산에 10키로 왓트의 대출력 송신기 2대가 입하되어 관계당국에서는 그 설치 후보지를 물색중이라 하니 금조 출발한다는 도시계장편에 격리병원신축관계 건의문 및 10키로 왓트 송신기 설치 설명서 등을 체경중인 하 시장에게 전달하여 교섭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7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5표 가결

※제7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김 경 희 의원

- 본 의원이 재무과 관계를 담당 감사한 바 있으나 보고 서류 미비 등을 부득이 명 31일 연기하려 하오니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완 의원 발언요지

- 교육청 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담당된 부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저반 교육청 추가 경정예산 통과 당시 예산 조치 전에는 절대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상금 수입상황에 있어 4285년도 수입이 4288년 10월 17일자로 430,599환이 수입되어 있는바 당초예산 69,700환으로 그 증액이 추가안된 이유를 묻고싶다.

둘째, 임야지목 변경에 있어 86년 1월 5일자로 전으로 개간제 인데 88년 10월경 도지사의 통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금 지가증권 경신신청을 않고 있다.

셋째로 89년 1월 16일 16일간에 공하여 체납처분자동차임대료 102,000환이 지출되었음에 반하여 독촉료 및 처분비 수입을 불과 13,061환밖에 안되는데 이 역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처사로서 세입면을 등한시하는 소치라 인정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물건인상당시 처분비로 저고리 한감에도 300환 가구등 운반에도 300환을 징수하였는가하면, 원세액 500환에 처분비 1,000환 원세액 1,000환에 처분비 300환을 징수하는 등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정 응 균 의원

- 사무감사보고서 서류에 있어 사무적으로 미비된 반이 있어 금일의 의사  
일정대로 진행키 난하오니 명 31일로 보고 기일을 연기할 것을 동의 재청  
(하오 12시 35분 산회할 것을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4월 2일

시의원 김 창 현

시의원 손 백 수

작성자 주 도 식

## 제46회 제3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3월 31일 상오 11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3월 31일 하오 3시 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오세일, 문택호, 김길환, 이복주, 김삼성, 김경현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외 각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및 동주사 박성수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제7회 시정 감사 각 반별보고

8. 토의사항

개회벽두 임일남 의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류를 휴대한 의원이 불참하였는데 이대로 회의를 하는 것은 자치법에 배치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 의장

- 30분간의 휴회를 선언.

(11시 30분 현재)

(하오 1시 정각 김남진 의원 참석 13명)

◇박 의장

- 오후 회의 속개할 것을 선언.

(1시 5분 현재)

- 시정감사 결과보고에 있어 각 감사반대표 김경희, 손백수, 김창현, 이소규, 김팔용, 김남진, 임일남, 진복춘 의원등으로 아래사항과 여한 보고가 있었음

◇김 경 희 의원 발언요지

- 재무과부과계 : 호별세 관계 중점적으로 감사대상에 놓고 세밀히 조사한 결과제 세금은 어디까지나 부과대장에 있는 그대로 고지서를 발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세수납부에 더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를 알고싶다.
- 징수계 : 예전일자인 17일에 징수 주무자의 보조를 받아 호별세관계 징수원부 일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수납부 5권 및 정리부 2권을 제시하기로 이외에 다른 장부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외에는 절대없다는 확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그외에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동반별로 예히 징수한 수입액 및 미수액이 통계와 수납부상에 발취한 금액을 대조한 결과 무려 37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다시 징수계에 가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징수계에서 다시 정리부 5권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 외에는 없다는 확인까지 얻은 바 인데 이제 또 다시 타장부를 내놓는 점과 체납액 정리부는 정리계에서 보관 정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계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며 사무적 착오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알고싶다. 그 후 갱히 대조검토하고 있는바 차이 된 대부분의 금액이 부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당초 제시하였던 원부와 그후 제출하였던 원부를 대조한 결과 누락된 것이 있으니 그 이유를 묻고싶다.

◇손 백 수 의원 발언요지

- 교육청문화계 : 성인교육 실시 사항을 보건대 남자 448명 여자부 2,329명의 문맹퇴치를 거양하여 전도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점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미취학 성년반 600여명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완전퇴치 시킬 계획이라 하며 이에 기대되는바 적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4288년 8월이후의 흥행사무취체 관계를 검토한 결과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성에 반하여 2월 현재 낡은 외국 영화 88편 국산영화 8편이 상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계에 발전적인 창안의 결핍성을 지적하여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극장의 환경정리등에 대하여 예를 들자면 원진관의 출입구 및 변소 등 불결을 지적않을수 없는바이니 취체당국의 적절한 조치있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시내 극장료가 고가이오니 당국에서 이의 조치를 요망한다.

셋째로 산정 국민학교 출입구 도로 개수 문제인데 강우량이 심하면 통행인이 걸음을 멈출 정도이니 조속한 시일 내 개수 할 것을 요망합니다.

- 총무과관재계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동명동 관내 대지료 400호를 필두로 1,300여호의 사유대지료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직원 1인이 배치 감당하고 있음은 너무 무리하다고 본다.

- 총무과지도계 : 극히 양호하다. 특히 제7회 국책첨가 소식에 있어서 90여%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적으로는 말위에 처하여 있다고 하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죽교3구동 : 행정사무 전반에 긍하여 타동의 모범이 될 만하여 찬양할 바 있다. 부언할 바는 동사무소 전면하수구 연도 곤구리드 옆에 3치 이상 5치 정도의 배토공사의 시급성을 요함, 4반 및 17반의 고지대에 위치한 주민의 수도사정을 돕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호발굴의 공사비 보조를 행정부측에 요망한다.

- 총무과시정계 서무과 :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 직업소개소 : 감상일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소를 갖았으나 소장부재로 못하였다. 차후로 주의를 바란다.



◇김 창 현 의원 발언 요지

- 금반1반에서 감사케된 무안동, 온금동, 산정1구동, 동명동, 남교동, 죽교2구동, 산정2구동, 서산동, 만호동, 영해동등 10개동의 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동정세 징수 및 회계사무 등에 있어 직원들의 착오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저하된 동이 불무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빈부동간의 직원인사교류가 절실히 느껴지며 직원의 발령은 동장의 추천을 무시하고 권력층의 지배에 치중한 것 같다. 이후 주무과의 유의를 요망한다.

- 사회과노동계 : 작년도의 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30여개의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40여 종목의 보고서류를 처리하며 다기다양인 노동사무처리에 당하고 있는 당해계에 주사1인 촉탁1인을 배치하고 있음은 너무 무리라고 보아진다 시급히 증원을 요망하는 바이며 부족한 직원으로 그 직책을 완수하고 있는 점을 치하한다.

- 재무과부과계 : 양호하다.

- 재무과징수계 : 제세 징수에 있어 호별세, 가옥세는 70%이상의 성적을 거양하여 비교적 우수하나 취득세, 특별행위세, 동력세, 면허세 등이 약 40% 징수에 불과하니 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한다.

- 대성병원 : 비품대장 및 약품 기타 양곡 등의 수불과계에 있어 장부정리 면에 가일층 완전무결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시립병원 : 입원실이 많고,各科를 설치하여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근소하다 그 이유로는 소위 환자라고 하면 마음이 상쾌하고 명랑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결하고 음습한 청사와 입원실 등을 수선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진용을 강화하여 적십자 병원 등과 같은 활발한 운영을 기하여 수지균형의 조절을 취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교육청 성인교육관계 : 900여만환에 달하는 성인교육비를 각동에 부과징수케 하여놓고 예산 승인신청을 제출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금 동 예산 승인 수속을 앓고 방관시하고 있다. 이 불합리한 처사를 조속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 교육청회계 : 비품 소모품의 구입수량과 수불대장이 합치되지 않은 점이 허다하니 회계사무취급에 중대한 결함이며 이는 취급직원의태만이 아니면 직원부족의 양자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둘째로 교육청에서 구입하여 각 학교에 배부한 제반물품이 각 학교의 수불대장에 누기된 것이 상당히 많은 바 이후 정확한 수불대장을 비치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요망한다.

- 공보계 : 공보계라 함은 시민의 대내외적인 여론 수집 외국인등록, 의결부의 동태, 제반 쫓기행사 및, 언론기관 상대, 제반통계 등을 위시하여 눈에 띄지 않는 복잡허다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공보계에 계원겸 계장 1인으로써 감당하여 손색없는 사무집행을 하고 있는 점을 찬양하는 바이며, 그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부한된 직책을 완전수행하기 위하여 아울러 금년도 선거 관계에 대비 최소한도 2인 내지 3인 정도의 증원 있기를 절실히 요망하는 바이다.

참고로 부언하는 바이나 광주시 공보계로 현재 3인이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영전당포 : 원래 시영전당포라 하면 영세시민의 복리 증진이 주목적인바 이율 4푼의 저리로써 운영하는데 반하여 개인 전당포는 2할이라는 고율로써 운영하고 있다한다.

그러나 시영 전당포를 이용하는 층이 극히 소수인 것은 1구당 4,000환이란 조례의 제약 구매를 받고 있어 230만환이란 자금을 사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행정부당국은 조속히 해 조례의 개정안을 모책하여 1구당 1만환 정도로 인상시킬 것을 요청하며 개인 전당포에도 여론을 환기시켜 월 1할 정도로 인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 시립병원 : 시립병원문제에 있어서는 김창현 의원이 보고 한 것에 중언되

는 것이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야 될 것이다.

첫째로 의사진의 대우 개선이 긴요되는 바 권위있는 의사들을 초빙하여 최소한도의 생활 문제를 해결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적십자 병원 장 월봉 5만원에 비하여 시립병원은 4,500환인 것입니다.

둘째로 청사내외의 환경정리에 주력할 것이며 도립병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김 팔 용 의원 발언요지

- 도시계·관리계(주도계) : 대체적으로 양호편이며 특히 추진력이 강하고 기술면으로 능숙한 수도계장에 대하여 각별한 찬양을 하고싶다.

그리고 문서 처리방법은 대단 양호 하나, 출장 명령부의 미비 및 수도사용료 징수 부진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제반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 않도록 주의한 바 있으나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하니 선처하기 바란다.

- 연동시장 : 당 연동시장은 아(我) 목포시의 관문시장이며 그 발전을 희구하였던 바이나 지정 점포수 33개소인데 현 개점수 18개소에 불과한 현상이며 대·중 상인의 입주 희망자가 전무라한다. 그 이유로는 방법·방화 수도시설 특전 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나 서(叙)상점의 조속한 시일 내 시정있기를 요망한다.

- 죽교4구동 : 동직원의 질적 향상이 촉구 되오며 전반적인 사무추진에 가일층 분발이 요청된다. 동행정 운영에는 안도감을 못갖는 것 같은바 그 이유는 현 동사무소의 위치가 해 동의 일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장 회의시에도 성과 미달로 유회한 적이 비일비재라 한다. 그 해결책으로는 현 동사무소를 매각 처분하고 동중앙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긴요되는 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시 당국의 보조로써 충당되기를 요망한다.

- 용당동 : 성인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극히 잘되어 있다고 보아지는 바이며 본동은 농촌지대의 빈동으로서 지역이 광대한 관계로 하추곡 수집시등 현 직원수로는 도저히 그 직책을 감당키 지난하오니 1인정도의 증원이 절실히

요청되는바입니다.

◇김 남 진 의원 발언요지

- 대성 1구동, 양동, 죽교1구동, 대성2구동, 북교동, 산정3구동, 죽교5구동 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문서의 처리방법등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개 용당동을 비롯하여 산정3구, 죽교5구동 등은 동정세로서 자금자족 못한 관계로 시의 보조에 의존케 되는바 타 동과의 재정적인 균형을 취하고 제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도폐쇄기에 이르러 전액 일시 지급 할 것이 있다.

1·2기로 분할 지급하여 시기적으로 재정 고갈상태를 면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특히 부연할 것은 대성1구동 양동등은 추호의 오차없이 활발한 동정운동을 기하고 있으니 이는 재정적인 윤택을 말하는 것이며 각 동간의 균형조절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 상동계 : 상공도시의 상공계로서 그 실천은 도 당국에서 장악하고 있다하나 직원 2인으로서 전반적인 사무추진에 손색없이 잘하고 있다.

- 농림계 : 타 계에 비교하여 직원은 과다한 편이나 복잡다단한 농림분배사무 및 이전사무, 농산물 증산사무등을 비롯하여 계수적인 보고사무등 대단히 잘 되어있다.

- 축산계 : 농촌지대 불가결의 가축증산, 전염병 예방등 계장이외 1인의 직원으로써 그 직책을 완수하고 있다.

- 도살장 : 타 도시에 비하여 우리 목포시민은 위생적으로 청결한 수육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도살장의 혜택이라고 한 것이다. 건축의 파손부분의 시급 보수를 요망한다.

- 남교동시장 : 상공도시의 면목을 여실히 표현하는 남교동시장 이야말로 전국적으로 자랑 할 만 한다. 시장 주임이하 전상인이 일치단결하여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시하여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일진월보 융성하는데 경하하여 마지 않는다.

- 건설과관리계 : 관리계는 도선장을 비롯하여 각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등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바 특히 수특회계 등 원만을 기하고 있다.

◇임 일 남 의원 발언요지

- 호적병무과 : 호적계, 병사계 공히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음, 호적계의 제증명 접수대장에 10여일간의 미정리분이 유한바 시급정리를 요망하오며 매장허가 대장에 있어 접수일자와 대장정리 일자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오니 차후 각별 주의할 것

- 총무과일반회계 : 사무적 착오인 것 같으나 증빙서류에 영수인 누락이 수건 있으니 차후 주의할지며 소모품 및 비품 등을 애용하여 수령시는 수령인 압날을 필행할 것

- 호남동 : 전반적인 사무적 면으로는 충실하다고 보겠음 회계사무담당자 미숙으로 기인 됨인지 유용으로 기인됨인지는 모르겠으나 현금 출납부와 예금 통장 간에 불부하니 그 이유를 알고싶다. 특히 각 동회계 사무담당자의 법규 교양 실시등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 유달동 : 전반적인 동 행정에 타 동의 모범이 될만하다

- 죽동 : 현금 출납부와 예금통장의 차이가 있으며 예금통장을 4매나 비치하고 있는가 하면 예금이자를 정식 수입으로 잡지 않았으며 지출증빙서 총액 15,695환인데 반하여 불입은 16,874환이란 이해하기 곤란한 숫자로 결국 1,179환이 과불입된 셈이된다. 그 이유를 묻고싶다. 회계사무 담당자의 무능 미숙을 지적한다.

- 공동하양장 : 공동하양장에 있어서는 그 운영방법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계획성과 추진력이 전무하며 수동적인 처리방법을 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사용료등은 징수 즉시 불입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수일전 부터 징수하였던 4,000여환을 유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징수일자와 시 불입일자가 전연 부합치 않는 경향이 있어 의심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입면 일익을 담당한 사업장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  
오며 유능한 인물의 배치를 요망한다.

- 용당도선장

1) 공무원의 규율확립을 견지하는데 가장 긴요한 출근부정리에 있어서 주무  
자는 (3월 23일)까지 출근을 전제로 하고 날인 되어 있는가하면 노무원 김용  
규는 2월 17일까지(3월 16일 현재임) 날인하고는 출근하고 있는지 결근하고  
있는지를 분변키 난한 정도이며 그외직원은 전원 3월 17일(익일)까지 날인하  
는 등 일관하여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날인임이 명약 관화 됨

2) 유류 수불 및 소비사항

유류는 회계에 구입(시지정 판매점)하여 도선장에서 업자와 거래하고 있는데  
도선장 소속의 창고가 없음으로 업자에 보관시켜 놓고 소비에 의하여 소요  
량을 수불하고 있는 현상인데 업자에게는 수령증도 징치않고 수불하고 있음  
으로 실제 재고량과 합치될 것인지 의심되는 바이며 도선장 유류 소비대장  
에 의하면 시 지정판매점에 보관잔량이 3월 16일현재 10 도람인데 반하여  
업자측장부는 30도람의 잔량이 있는 것이다. 결국 20 도람의 잔량에 대한 행  
방을 알고싶다. 또 시 구입대장과 도선장 측을 재조하면 다음과 같다.

시 회계대장 150도람, 도선장대장 113도람(경유 및 중유) 그 차이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인지?

3) 매포대금 불입관계(3월 13일)

도선장측 불입금 5,147,976환, 시 불입금 5,127,149환

차액 20.827환을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는데 시영사업장의 합리화 한 운영방법 및 시 세  
입면을 포착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 있기를 재강조 하는 바이다.

◇진 북 춘 의원 발언 요지

- 민원서류 속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를 들어 호적계의 사무집행상황을  
보건데 시민으로부터 호적등초본 발급 청구를 받은 즉시 처리하여 관인을  
압날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부인이라던가 무식층의 청구  
자에게도 총무과에 가서 압날하라고 하여 그 책임완수를 결하고 있다. 그러  
니 이 사람들은 총무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죽  
교5구동 같은 광대한 지역에 직원3인을 배치하고 있는 관계도 제반독려 출

장등에는 전원 사무소를 비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민원서류의 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하고 교부 받는데 무단한 시일을 낭비하는 폐단이 있는데 더욱 관인압날 마저 지체되는 등 실로 한심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 시정하여 주기 바라며 말단행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국가 시책에 기여되는바 크다는 것을 재 인식하여 변두리 동에는 자전거 1대라도 구입하여 주기 요망 하오며 동직원의 증원을 요망하는 바이다.

- 남교동시장 : 남교동 간이시장의 조속한 시일내 수축을 요망한다. 시장 사용료 징수에도 대 지장이 있다한다.

- 본 청에도 각계에 1인씩 배치한 곳이 있으나 공동하양장등과 같은 사업장에 직원 1인을 배치한 것은 시행정당국의 조루한 점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어느 때 그 직원이 병으로 누울지도 모르는 문제이니 그 동안은 공간이 생기게 되지 안겠는가 조속 배려 있기를 요망한다.

#### ◇ 정응표 의원

- 본 시정감사보고는 이로서 종결짓고 이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부측의 심의서 답변을 징하고 질의 응답을 내4월 10일에 행할 것을 동의...재청.

표결결과 재석 13명중 가 11 가결

· 다음 박 의장으로부터 다음 같은 강평이 있었음

20여일 간의 감사기간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먼저 행정부측에 말하고 싶은 것은 시청 간부간에 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한 가정에도 인화가 필요하거늘 하물며 13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쌓 견에 질며진 간부간에 육박전은 아닐지라도 음음한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각자 스스로 반성하여 자숙자계 원활한 시정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시기 요망합니다.

둘째로 각과 동 사업장등의 사무감사 보고내용을 청취하였는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특히 유달동은 제6회 시정감사시의 불명예를 회복하여 지금  
히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점은 높이 치하하는바입니다.

셋째, 재무과 감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서류 제출요구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야기하였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공동하양장 동 직원 1인의  
배치는 무리라 아니할 수 없으니 주관과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회구하는 바  
이다.

넷째로 용당 도선장 문제인데 감사시 마다 불미스러운 보고가 대두되는데  
금반의 보고에도 불쾌하기 짝이없다. 행정부당국은 금후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감시의 눈을 게을리지 말것이며 타 직원과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요  
망하는 바이다.

· 폐회선언

(하오 3시 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4월 2일

시의원 김 창 현

시의원 손 백 수

작성자 주 도 식